

# “빨리 선물하면 큰 혜택” 설 선물 고객 잡기 나선 백화점

### 롯데·신세계 등 내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최대 50% 할인 판매 프리미엄·가성비 선물세트 강화...사전예약 매출 증가에 품목 확대

백화점 업계가 내년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주요 백화점들은 명절 선물을 미리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판매 품목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2개 롯데백화점 모든 점포에서 2024년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잇따른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할인 혜택 프로모션이 주어지는 사전 예약 판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실제 올해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은 전년 추해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오는 2024년 설 선물 사전예약 기간 동안 판매 품목 수를 올해 설 대비 10% 늘렸고, 신선식품·건강식품·주류·가공식품 등의 상품군 22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한우, 청과 선물 세트는 프리미엄 상품부터 가성비 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로얄한우 스테이크 GIFT’, ‘저탄소 한우 혼합 GIFT’, ‘한우 소확행 특선 GIFT’, ‘실속 한라봉·애플망고 GIFT’ 등이 있다. 또 전통적인 명절 인기선물인 ‘영광 법성포 굴비 GIFT 월(月)’, ‘완도 활전복 행복 GIFT’, 롯데 상주곶감 프리미엄 GIFT 眞(眞) 등도 특별 할인 행사에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동안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다. 특히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2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은 품목을 올해 설보다 25% 늘려 60여개의 품목을 준비했다.

사전 예약판매 품목은 사과·배·한라봉 등 과일 51종, 한우 등 육류 32종, 굴비·갈치·전복 등 수산 29종, 건강식품·차 46종, 와인 25종 등 총 260품목으로 구성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민감한 점을 반영해 수산 품목 중 가장 인기품목인 굴비는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굴비의 원산지 및 생산 경로 등을 QR코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사과, 배, 애플망고 등이 담긴 ‘삼색다담(26만원)’, ‘신세계 암소 한우 스테이크(38만 7000원)’, ‘수협 영광 잠갈비 특호(72만원)’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도 내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 같은 기간 2024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설 선물 사전 예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을 20% 늘렸고,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한우·굴비·청과·건강식품·주류 등 인기 품목 200여 종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만큼 소비 양극화 트렌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 프리미엄 상품과 가성비 좋은 실속 상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사전예약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대형마트 PB 제품 ‘가성비 실종’...44% 가격 인상

### 용량 줄인 제품도 있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10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가공식품 742개 중 44.1%가 지난해보다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383개 제품 중 197개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롯데마트는 176개 중 71개, 홈플러스는 183개 중 59개 가격이 각각 인상됐다.

값이 내린 것은 85개였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9건 있었다.

이마트 PB 브랜드 피코크의 ‘맛있는 순대’는 지난해 조사에서 1200g에 8980원에서 올해 1000g으로 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 대비 가격이 20%가량 인상된 셈이다. 롯데마트 PB 요리하다의 ‘모짜렐라 치즈볼’은 360g에 6490원이었는데 이번에 용량이 336g으로 줄었다.

이밖에 이마트 노브랜드 ‘밀크초콜릿’, 롯데마트 온리프라이스 ‘스위트칠리소스’, ‘달콤고소장스낵’, ‘클래식 돈까스소스’, 요리하다 ‘물만두’, ‘고기왕만두’, ‘얇은피 김치왕만두’ 등도 양이 줄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PB 가공식품 1370개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상품 74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품질이나 브랜드명 변경 등으로 비교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제조사나 제품명 등을 바꾸면서 가격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성비몰락을 대형마트 PB상품도 매년 가격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bhc 치킨값 오른다...뿌링클도 2만원대

### 85개 제품 500~3000원 인상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

bhc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균 인상은 12.4%다.

bhc치킨의 대표 메뉴인 뿌링클 가격은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3000원 오른다. 맛초킹, 양념치킨도 3000원 비싸진 2만 1000원에 판매된다.

후라이드치킨과 골드킹은 1만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바삭클은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부분육 메뉴는 품목별로 가격이 1000~3000원 인상된다.

현재 1만 7000~1만 8000원대인 bhc치킨 가격은 이번 인상으로 2만~2만 1000원대의 다른 브랜드 치킨과 비교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비슷해진다고 bhc는 설명했다.

bhc 가맹점주들은 올해 여러 차례 열린 간담회에서 수익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으며 BBQ는 지난해 5월 주요 제품 가격을 2000원 올렸다.

### 향수 면세 60ml→100ml 상향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ml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자정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ml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ml는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국내 출시

### 주사율 보정·비전 부스터 탑재 등

삼성전자는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9 FE’ <사진>와 ‘갤럭시 탭 S9 FE+’를 내년 1월 3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 탭 S9 FE는 277mm(10.9형), FE+는 315mm(12.4형) 디스플레이에 최대 90Hz의 주사율 자동 보정 기능,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비전 부스터 기능을 탑재했다.

기기에는 실제 펜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뛰어난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이 포함돼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노트·노트-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EX·루마퓨전·아크 사이트 등 창작 앱도 기본 탑재돼 있다.

또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을 지원(S펜 포함)하고, 저장 공간 확장을 위해 최대 1TB(테라바이트)의 마이크로SD 카드를 추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9 FE 및 FE+ 출시를 맞아 내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4 갤럭시 아카데미’ 행사를 진행하고, 제품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액세서리 및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CU, 학창시절 추억의 간식 간편식으로 출시

### 피자빵·고로케·잔치국수 등 5종

편의점 CU는 추억의 간식을 간편식으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불황 속 복고 상품을 찾는 ‘뉴트로’(New-tro) 트렌드가 뜨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CU에서는 약과와 인절미 등 할매 니얼(할머니+밀레니얼)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215%나 증가했다. 이번엔 선보이는 제품은 베이컨 콘치즈 피자빵, 불고기 치즈 피자빵, 통통 새우 고로케, 추억의 잔치국수, 대파김치 칼국수 5종이다.

모두 한 끼 식사로도 넉넉한 양에 가격도 3000원대로 저렴하다. 추운 날씨에 속을 든든하게 해 줄 잔치국수는 1월 한 달간 500원을 할인해 2000원대에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